



‘불도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10% 관세·캐나다 25% 논의 중...관세로 공정성 찾을 것
美, 틱톡 허가해주고 절반 가져야... ‘머스크 인수’에 ‘열려있다’
푸틴과 곧 대화...우크라 협상에 만나오면 對러 제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중독 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남인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 “아마도 2월 1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시 관세와 관련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전날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에 대해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약화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관련, “대(大)소유주(the big owner)를 만났다”면서 “만약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운영을) 허가하지 않으면 (틱톡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달러의 가치가 있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사서 그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허가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말하는 것은 미국은 허가를 주고 그 절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그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은 19일 일시 중단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간 유예하면서 일단 재가동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추진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살펴볼 것”이라면서 “젤렌스키와 대화하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very soon) 대화할 것이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불지 묻는 말에는 “모른다”면서 “젤렌스키는 평화를 강력하게 원하지만, 탕고를 추르면 2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을 언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원하는 때”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 뒤 “유럽이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수준을 5%로 올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LA) 산불과 관련,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고 벨브만 열었으면 되는데 이 벨브를 잠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나는 물을 즉시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 허리케인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 뒤 LA에 이어 네바다를 찾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휴회 각료 임명권과 관련,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경찰관을 공격해 유죄를 인정된 사람까지 포함해 사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는 그들의 형량이 터무니없고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은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면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지지자 그룹 간 논란이 있는 전문직 비자(H-1B)에 대해 “우리는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H-1B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가자 잠잠해지니 반대편 ‘포성’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 안된 서안지구에서 전쟁
가자 ‘불안한 평화’ 사흘째...구호트럭 2400여대 투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은 일단 조건부로 멈췄지만 반대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오히려 포성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인 제재를 해제하자, 이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서안지구로 눈을 돌려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안군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을 공격,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군·경과 안보기관의 ‘대테러 작전’이라고 내세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에 손을 뻗치는 이란의 축에 대항해 체계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은 국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 지녔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이스라엘인을 보내 유대인 정착촌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약 70만명의 이스라엘인과 27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도 대담해지

고 있다.
제닌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앞둔 며칠 전부터 곳곳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20일 오후에는 알폰두크 마을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무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배럴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는 불안 속에서도 일단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19일 휴전 이후 사흘간 2400대가 넘는 구호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
휴전 첫날인 19일 630대가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0일 915대, 21일 897대가 각각 구호물자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기근 위험신호가 감지되는 가자 북부를 중심으로 음식과 물, 의약품과 상수도 및 주거지 보수를 위한 물자 등이 전달되고 있다.
파손된 도로로 인해 트럭 이동이 지연되거나 일부 주민들이 구호품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인 무하나드 하디는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트럭에 올라타 음식 바구니를 훔치려 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물병을 훔치려 하는 수준”이라며 “가자 주민들이 모두에게 충분한 구호품이 제공되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며칠 내로 이런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독도 발언’에...서경덕 “혼란 틈타 망언”

영토문제담당장 ‘독도 관련 일본 입장 발신 강화’ 발언 비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사카이 마나부 일본 영토문제담당장이 국내외에 독도 등과 관련한 자국 입장 발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카이 영토문제담당장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 관한 일본 입장을 소개하는 순회전에 참석해 이 같은 망언을 내뱉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본 각료가 한국 혼란을 틈타 이같이 발언하는 건 정말 무례한 것”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시관이 오는 4월 체험형 전시물 등을 보충해 재오픈하면 독도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먼

저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국립 전시시설인 ‘영토·주권전시관’이 도쿄 마루노우치 상업시설에서 진행 중인 순회전을 방문한 사카이 영토문제담당장은 “영토 보전은 일본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내외에 (일본 입장) 발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영토의 이해를 심화해 취해야 할 대응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시관은 독도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전시를 해 왔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